

샌드크래프트와 풍력발전 장치군 - 가마야하마 해수욕장

미타네초의 가마야하마 해수욕장은 잔잔하고 맑은 바다와 넓은 모래사장이 매력이며 일본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2006년에는 '일본 해수욕장 100 선(快水浴場百選)'에 선정되었으며, 일본해(한국 동해)에 지는 석양의 멋진 경치 때문에 '선셋 비치 가마야하마'라고 불립니다. 이 가마야하마의 독특한 풍경은 2019년 촬영된 영화 '데이 앤 나잇'의 해변 장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풍력발전 풍차

가마야하마 해수욕장의 또 다른 특징은 해안에 3km에 걸쳐 늘어선 18기의 하얗고 큰 풍력발전 풍차입니다. 풍력발전 풍차의 높이는 63m이며, 날개 길이는 102m에 달합니다. 이 발전 풍차를 통해 약 17,000세대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전력인 연간 최대 5,400kWh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당 3m의 풍속에서 회전할 수 있으며, 풍속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춥니다.



모래조각

매년 7월 말이면 해변에서 ‘샌드크래프트 in 미타네’가 개최되며, 일본 국내외에서 모래 조각가들이 모여듭니다. 모래 예술가들은 모래를 사용해 거대하고 복잡한 조각을 제작하고 정착제를 바깥쪽 층에 섞어 세세한 부분을 유지합니다. 가장 큰 조각은 높이가 3m가 넘고, 완성까지 2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문에서 상이 수여되며, 축제에서는 라이브 음악과 불꽃놀이 등의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모래 조각은 8월 말까지 전시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캠핑카를 포함해 차량 1,1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해변 근처에는 화장실, 유료 샤워 시설, 카페가 있으며, 이 시설들은 동절기에는 폐쇄됩니다. 가마야하마 해수욕장에는 노시로역에서 차로 25~30분이면 도착합니다.